



## **CASTING FOR A NEW AGE**

Extraordinarily imaginative designed and colorful recent works of SHIN Sangho construct a future from the past, in mixed media, and exploit once more ceramics unrivaled versatility. While the past reverberates with a certain dramatic new strength in SHIN Sangho's most recent body of work, produced over the past two years, the use of diverse materials and controversial content assures their inevitable praise or criticism after their initial exposure in a limiting art world.

His renown should extend now well beyond the clay world. He should be considered amongst those artists who have achieved critical acclaim dealing with subject matter transcending the limiting identity of his field and whose esthetics reach beyond the predominant confinement of one medium stretching their sensibilities to subject matter and other media potential to convey a point of view or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is regard, let us remember again the ceramic works of Pablo Picasso, Joan Miro, Mary Frank, Reuben Nakian, Isamu Noguchi and Robert Arneson for instance, all of whom embraced clay as a very potent media. As for SHIN Sangho's new body of work, the medium isn't the message, I think, but its versatility can be its supreme virtue, enabling the artist to imitate whatever surface or structure or form the artist may wish to interpret and convey with clay.

In SHIN Sangho's case his curiously constructed range of sculptural objects seemingly refer to another epoch or a somewhat strange cultural development, redolent with signage and containers reconfigured for another time or place. To achieve a wide enough range of artifacts to support the idea of another advanced cultural state of affairs, Shin uses a wider combination of materials including steel, oil paint, ceramics, glaze and wood paneling. He gives these remnants a new esthetic life, with highly charged colored surfaces, brilliant forms, charged decoration, mostly machine-like objects rescued from post-modern leftover resources of a post-industrial world in which we now live and can quest for meaning in the configuration of objects.

Containers, human figures, colored signage, reemployed blue prints, advertising for the ills of another age, medications, numbers, codes, polka dots cover the colorful surfaces of most of these new works. These curious structures for the retention of memory, all somewhat strange and futuristic elements and images which may suggest a recovered new-world composed of reminders of the recent past.

SHIN Sangho's inclusion as an important, impassioned, productive and prolific international artist of our current age with his issues and visions of the future will be confirmed with the exposure of these ambitious new installation works. They transcend his reputation as a clay artist alone, secure his deserved status as a sculptor par excellence, a highly charged painter, monumental builder, postmodern designer, social commentator and installation artist incorporating sound and movement as well.

Ronald A. Kuchta  
N.Y.C. 2012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캐스팅

파격적인 상상력과 다채로운 색채로 구성된 신상호의 최근 작품들은 혼합매체를 이용해 과거로 미래를 구성하며 비할 바 없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도자작품을 또 한 번 시도하고 있다. 그가 최근 2년 동안 제작한 작품들은 과거 모종의 극적인 힘으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 작품들이 최초로 소개된 이후 다양한 재료의 이용과 논쟁적인 내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찬사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은 현재 도예 영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인 도예가 가진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재를 다루는 예술가들 중 한 명으로 격찬 받고 있다. 그의 미학은 하나의 제한된 매체를 넘어 감성과 소재를 표현하며 관점과 환경적 조건을 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매체를 탐색한다.

이와 관련해 흠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받아들여 도예작품을 제작한 예술가들로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호안 미로Joan Miro, 메리 프랭크Mary Frank, 루벤 나키안Reuben Nakian, 노구치 이사무Isamu Noguchi, 로버트 아네슨Robert Arneso 등을 들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신상호의 최근 작품은 특정한 매체이긴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장점이 되는 매체의 다재다능함은 작가가 흠을 이용해 자신이 해석하고 전달하고자하는 표면, 구조, 형태 등 그 무엇이든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호의 신기하게 구성된 조각적 오브제들은 겉으로 보기에 또 다른 시대 혹은 다소 기이한 문화적 발전을 나타내는 듯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시간이나 장소로 재조합된 컨테이너와 신호체계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철, 유화물감, 도자, 유약, 목판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데, 이는 보다 발전된 문화 현상을 생각하도록 하는 확장된 범위의 작품(가공물)을 창조한다. 그는 이러한 잔여물(폐기물)에다 색채로 가득한 표면, 탁월한 형태, 짝 들어찬 장식, 대부분 기계와 같이 생긴 오브제들로 새로운 미적 삶을 부여하는데, 이 오브제들은 우리가 살고 그것을 구성하면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후기 산업사회의 포스트 모던한 잉여 자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의 대부분의 최근 작품들은 컨테이너, 인체 형태, 채색이 된 신호체계, 새롭게 이용되는 청사진, 시대의 아픔을 위한 광고, 약품, 숫자, 기호, 땡땡이 무늬 등으로 뒤덮여 있다. 기억을 유지시키는 기이한 구조들, 다소 기이하며 미래 지향적인 요소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암시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멀지 않은 과거를 상기시킨다. 신상호는 미래에 대한 이슈와 전망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중요하고 열정적이며 생산적이고 다작을 하며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 한 명으로서 야심 찬 새로운 설치작품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히 도예가로서 뿐만 아니라 탁월한 조각가, 열정적인 화가, 기념비 제작자, 포스트모던 디자이너, 사회 문제 해설가, 그리고 소리와 움직임 통합시키는 설치작가로서 그의 입지를 확인해준다.